

아나키의철학과이상

표트르알렉세이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이비치크로포트킨
아나키의철학과이상
1898

강연의 주제로 아나키즘의 철학과 이상을 선택하는데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습니 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아나키즘을 미래에 대한 망상 혹은 모든 존재하는 문명을 파괴하려는 근거 없는 열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견은 교육을 통해 주입되었고,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연에 서할 수 있는 것이 상의 세심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만 해도 파리의 신문들은 아나키즘의 유일한 철학은 파괴이며, 유일한 논거는 폭력 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드디어 일부 독자들은 우리의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으며, 때로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아 나키스트들이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들 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 이상은 지나치게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먼 미래의 흐릿한 환상 외 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역의 철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한 것 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아나키즘을 사회주의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지금, 아나키즘은 철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명백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몇 가지 사례들은 내가 런던에서 행한 강연 중에서 차 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예시들은 아나키즘의 철학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든다고 불평하지는 마 십시오. 그 예들을 우리의 사회적 입장에 대한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요. 단순히 나는 몇몇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 사회의 복잡한 삶에서 선택한 예시들 보다는 자연과학적 예시들이 더 큰 도 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정확한 과학의 영역에 속 한 현상들 속에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방법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 났으며, 과학 분야에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인간이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시 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양, 달, 행성들, 별들이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이 창조세계의 중심이었습니 다.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지구의 최고 존재였으며, 조물주의 선민이 었습니다. 태양도, 달도 그리고 별들도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였습니다. 신은 인간의 가장 작은 행동까지 관찰하고, 인간을 위해 태양의 운행을 멈추 고, 구름위를 비행하며, 들판과 도시에 비를 내리고, 혹은 선행에 대한 상으 로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벌로 뇌우를 보냅니다. 이렇게 신의 관점은 온통 인

간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수천년 동안 인간은 우주를 이런 식으로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계의 모래알뿐이며, 다른 많은 행성들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구슬일 뿐입니다.

태양 자체는 하늘에서 빛나는, 거대한 은하수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란 사실이 16 세기에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간의 세계관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한과 비교할 때 인간은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인간의 불평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우주관의 변화는 모든 철학, 당시의 모든 사회 그리고 종교관에 반영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그토록 자랑하는 자연과학의 발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나키즘은 바로 이 무수한 진화 현상들 중의 하나, 이 태동 중인 새로운 철학의 여러 줄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난 세기 말 혹은 금세기 초에 나온 천문학 서적 중 어떤 것이든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행성이 우주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 도처에서 여러분은 인력으로 지구를 통제하는 거대한 천체인 태양에 대한 서술을 발견할 것입니다. 행성들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시스템의 조화를 유지하는 힘은 이 중심 천체로부터 나옵니다. 행성들은 어떤 중심 질량으로부터 생성되며, 말하자면 그것은 분열과 번식의 산물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나는 태양이 이제 중심 질량의 위치를 갖게 되고, 행성들에 나타나는 현상들, 즉 운동의 리듬, 절묘하게 나누어진 궤도, 행성의 표면에 생기와 아름다움을 주는 생명은 중심 질량 덕분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의 운동이 파괴되고 궤도로부터 이탈하려 한다면, 중심 천체는 시스템의 질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중심 천체는 질서를 유지하고, 시스템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낡은 세계관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계관도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태양과 거대한 행성들에 관심을 집중하던 천문학자들은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히 작은 물질들의 연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행성들 그리고 별들 사이의 모든 공간이 작은 물질 덩어리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보잘 것 없지만, 숫자는 엄청납니다. 이 덩어리들 중에는 굉장히 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스페인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운석이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몇 그램 정보밖에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더 작은, 거의 마이크로 단위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입자와 가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공간을빠른속도로모든방향으로움직이고, 부딪치고, 썩이고, 끊임없이모든곳으로떨어지는입자들과무한히작은물질에서, 현대천문학자들은우리시스템인태양, 행성, 위성의기원뿐만아니라, 이다양한물체의고유한운동, 전태양계의조화에대한설명을찾고있습니다. 한걸음더나아가서, 가능한모든방향으로흩어지는원자들은무한히작은진동운동을하고있습니다. 만유인력은이무질서하고비인과적인진동운동의합에지나지않는것같습니다.

이렇게지구에서태양으로 옮겨갔던힘의중심이이제모든곳으로갈라지고나누어지는것처럼보입니다. 즉힘의중심은모든곳에있고이와더불어어느곳에도있지않습니다. 천문학자와함께우리는, 태양계는무한히작은입자들의결합의산물일뿐이며, 항성계恒星系는서로를채우고균형을유지하며조직되는무수한운동들의일정한합력, 일정한적응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새로운세계관의관점에서보면, 우주는다른종류들을받아들입니다. 세계를관장하는힘, 예정된법칙, 예정된조화라는것은바로이런것입니다. 푸리에 (F.Fourier) 가어느정도예견하였던예정조화는상호간의균형을유지하며서로독립적으로움직이는무수한물질의총합, 즉운동의합력일뿐입니다.

그러한변화가천문학에서만일어나지는않습니다. 우리는자연을다루는학문에서뿐만아니라예외없이모든과학에서, 혹은인간의문제를다루는학문에서도같은변화를발견합니다.

물리학에서는열, 자력, 전기에대한추상적개념들이사라지고있습니다. 오늘날물리학자가가열되고충전된물체에대해언급하는경우에, 이미그는이물체를초자연적힘이내재한무생물덩어리로생각하지않습니다. 그는이물체에서그리고그것을둘러싸고있는공간속에서무수히작은원자들의운동과진동을찾으려합니다. 이원자들은모든방향으로운동하고, 진동하고, 살아있으며, 자신의진동과충돌과생명으로열과빛과자력혹은전기현상을만듭니다.

생물체를연구하는과학에서종과종의변화에대한개념이서서히사라지고있습니다. 개체에대한개념이그자리를대신하고있습니다. 생물학자와동물학자는개체를, 개체의삶과환경에대한적응을연구하고있습니다. 공기의습도, 더위와추위, 먹이의과부족, 환경의영향에대한민감성의크기에따라, 개체속에발생한변화들은종의발생으로이어집니다. 생물학자에게종의변화는각각의개체에독립적으로발생하는변화들의총합, 합력일뿐입니다. 개체들은주변환경으로부터무수한영향을받으며, 자신의방식에따라이영향에반응합니다. 그리고종의특성은종을구성하는개체들의특성에의해결정됩니다.

수난사는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피와 소름끼치는 고통으로 가득한 이 책의 한 부분을 지나왔습니다.

이 많은 고통, 처형, 기아나, 시베리아, 누메아로의 유형 생활을 알면 서도 사람들은 붕기하는 노동자들이 인간 생명을 경시한다고 감히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의 삶에서 모든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억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선고하는 재판관, 그들의 하수인인 사형 집행인 (이들은 구경하러 모인 사회의 인간 쓰레기들의 웃음속에서, 대낮에 마드리드에서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파리의 아침 안개속에서 참수형을 집행합니다.), 톱깅 혹은 투르크메니아에서 살육을 지휘하는 장군, 칭찬으로 살인을 은폐하는 신문기자, 아연이 함유된 백린으로 노동자들을 중독시키는 기업주, 흑인 마을에서 소리 질러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을 살해한 영국 지리학자 스탠리 (H. Stanley), 동거녀로 취한 흑인 처녀를 '부정'을 이유로 교수형시킨 독일 지리학자, 살인 행위 가 드러난 비리비의 교도관에 대한 재판에서 2 주 구류로 형을 제한한 군사 재판 등 현대 사회의 모든 것은 마치 시장에서 값싸게 살수 있는 물건처럼 현저하게 인간 생명의 경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값싼 물건인 인간을 사형시키고, 죽이며, 처형하는 자들, 사회를 구하기 위해 교수형, 총살, 살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교리에 포함시키는 종교인들, 여전히 그들은 혁명가들이 인간 생명을 경시한다고 감히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회가 피의 복수 법칙을 따르는 동안, 신앙과 법, 병영과 재판소, 감옥과 공장에서의 강제 노동, 출판과 학교가 계속하여 인간 생명의 완전한 경시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이 사회에 대하여 붕기하는 사람들에게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현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선과 관용을 그들에게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과 함께 자유를, 그 결과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기 원한다면, 형태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멸했던 아나키즘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은 우리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 이상에 적합한, 그리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폭력 행위들에 중지 부를 찍을 사회 형식의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리학자가 어떤 식물 혹은 동물의 생명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는 유일하고 분리할 수 없는 개체보다는, 오히려 수백만의 개별적 개체들로 구성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소화 기관, 감각 기관, 신경 시스템 등의 연합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기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 기관들의 좋은 혹은 나쁜 상태를 반영하고, 그럼에도 각각 고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각각의 기관, 기관의 각 부분은 분리한 존재 조건과의 투쟁을 위해서로 연합된 독립적인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개체는 완전한 연합체이며, 그 안에 완전한 우주를 포함합니다.

이 세계에서 생리학자들은 혈액, 조직, 신경의 독립적인 세포들을 찾습니다. 세균에 감염된 신체 조직에 투입되어 싸우는 수십억 개의 백혈구를 찾습니다. 나아가 이제 생리학자는 각각의 세포에서 독립된 요소들의 완전한 세계를 봅니다. 이 요소들 덕분에 개체는 고유의 삶을 살고, 다른 요소들과 집단을 이루고 연합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각각의 개체는 기관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관은 완전한 세포의 세계이고, 각각의 세포는 무한히 미세한 것들의 세계입니다. 이 복잡한 세계에서 전체의 행복은 유기체의 가장 작은 미세 분자들이 향유하는 행복의 크기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철학에서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혁의 결과는 심리학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심리학자는 유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종교적 전통에 따라 그는 인간을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기주의자와 박애주의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체로서의 정신에 대한 표상은 18 세기의 유물론자들에게도 존재했습니다.

가령 심리학자가 지금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 말한다면, 오늘날 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심리학자에게 인간은 많은 개별적 능력들, 많은 독립적 욕망입니다. 이 능력과 욕망은 서로 동등하며, 서로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또한 서로를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하고, 서로간의 모순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현대 심리학자에게 전체로서의 인간은 이 모든 다양한 능력들의 총합, 뇌 세포와 신경 조직의 독립적인 욕망들의 영원히 변화하는 총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각각은 독립적인 삶을 살고 어떤 중심 기관에도, 어떤 정신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오늘날 얼마나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전에 무시하던 세부 사항들을 지금 그들이 연구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즉 사실

(facts) 은예전그대로입니다. 그러나그에대한이해의방법자체가변하고있습니다. 새로운경향의특징을간단하게설명한다면, 과거에과학은 거대한결과들과총합의 (수학에서말하는적분이바로총합입니다.) 연구에몰두했습니다. 반면에오늘날과학은주로무한히작은것들을, 즉총합을구성하는개체들을연구한다고말할수있습니다. 학자들은이개체들속에서독자적이며개체화된그러나동시에서로밀접하게연결된요소들을발견합니다.

인간의지혜가자연에서찾는조화에대해말하자면, 현대의학자는과거어느때보다오늘날그것을더많이알아내고있습니다. 이조화는본질적으로일정한현상들의지속적발현일뿐입니다. 그러나그는조화를어떤이성적의지에의해예정된, 정해진계획에따라창조된‘법칙들’의활동으로설명하지는않습니다.

앞에서‘자연법칙’이라고한것은일정한현상들사이에서우리가포착한관계일뿐입니다. 각각의그러한‘법칙’은이제인과성이란조건적형식을획득하게되었습니다. 즉‘그러한조건들에서그러한현상이발생한다면, 이현상의뒤를이어또다른그러한현상이발생한다.’는것입니다. 법칙은현상의밖에존재하지않습니다. 각각의현상은법칙의지배를받는것이아니라그에선행한현상의지배를받는것입니다.

우리가자연의조화라고부르는것에는어떤선입견도들어있지않습니다. 조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우연적충돌과결합으로충분합니다. 예를들어, 한현상은수세기동안존재할것입니다. 왜냐하면조건에완전히적응하기위해, 현상이표현하는균형에이르기위해수세기가요구되었기때문입니다. 어떤현상은한순간만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이일시적인균형상태는한순간에발생하기때문입니다. 태양계의행성들이날마다부딪치거나서로충돌하지않고수백만세기를존재한다면수백만우연한힘들의총합처럼, 그것은수백만년걸려만들어진균형상태를이루고있기때문입니다. 대륙이화산폭발의결과로날마다붕괴되지않는다면, 그원인은부분과부분이차례로솟아올라오늘날과같은모습을갖게되기까지수천세기가필요했다는데에있습니다. 이와반대로번개는단한순간만존재합니다. 왜냐하면번개는균형의일시적파괴와불균형한힘의갑작스런분할을보여주기때문입니다.

이렇게자연에서의조화는서로다른힘들사이에만들어진일시적균형의형태로나타납니다. 어느정도잠정적인적응은지속적인형태변화에서만존재할수있으며, 매순간모든대립하는힘의총합으로표현됩니다. 이힘의총합중어느하나가일시적으로활동의제약을받는다면, 조화는사라질것입니다. 그때다시활동능력이이힘속에서서히축적되기시작하여**언젠가만드시발현되고, 드러나게될것입니다.** 다른힘들이이힘과대립한다해도, 이힘은사라지지않고, 균형을파괴하며조화를파괴할것입니다. 그것은새로운균형과적응형식을찾기위해서입니다. 화산폭발도그

다. 그들은사회주의자, 입헌주의자, 자코뱅주의자로서알렉산드르 2세에게가차없는전쟁을선포하였고, 전제권력에대한항투쟁에서 35명이교수대에서목숨을잃었으며수백명이술리셀부르그와시베리아에서고통을당했습니다. 벨기에, 영국, 미국의광부들사이에서도마찬가지로 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모든저항과함께아나키스트들이스페인과프랑스에서등장합니다.

이와함께이모든기간중에정부들이자행한집단살육과개별살육은 끊이지않고있습니다. 베르사유회의는, 전유럽자본계급의동의속에서 3 만 5 천명의노동자그리고패배한대부분의파리코뮌의포로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부유한미국자본가들에의해유지되는사병인‘핀커톤(A. Pinkerton) 의강도들’은모든기술을동원하여파업노동자들을살해합니다. 사제들은정신적으로허약한젊은이를교사하여루이제미셀(Louise Michel)에게충격을가하게만들었습니다. 진정한아나키스트였던그녀는암살자를재판에서구해보호해준적이있습니다. 유럽밖에는 캐나다에서의인디언학살, 리엘(L. Riel)의처형, 마타벨레족¹⁶ 학살, 알렉산드리아폭격이있습니다. 그외에도전쟁의이름으로자행된통킹, 마다가스카르등지에서의학살도있습니다.¹⁷ 마지막으로매년구세계와신세계에서불기한노동자들에게보통수백명심지어수천명씩수년의징역을선고하고, 그런방식으로그들의아내와아이들을가장처참한가난으로몰아냅니다. 이들은소위가부장의죄때문에보복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불기한다른노동자들을시베리아로, 판텔라리아(Pantellaria), 비리비(Biribi)¹⁸, 누메아(Noumea), 기아나(Guiana)로유형을보내고, 이유형지에서아주소소한반향을구실로유형자들을처형합니다.¹⁹

누군가지난 25 년동안노동자계급과그옹호자들이당한모든고통목록을작성한다면, 얼마나무서운책이될까요? 내가여러분께는알려지지 않은, 그것에대해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을악몽처럼따라다닐그런끔찍한사실이드러날것입니다! 위대한사회혁명을알리는현대의예언자들의

¹⁶ 역주 - 아프리카짐바브웨의원주민 (Matabele).

¹⁷ 아프리카에서영국인이그리고만주에서러시아인이자행한학살로이목록이늘어나갈 수도있다.

¹⁸ 알제리의프랑스교도부대가그렇다. 그곳에서는니콜라이의사형집행자들이꿈도꾸지못할그런전대미문의만행이자행되고있다. 기아나에서 (공식적통계에따르면) 유형자들의 3 분의 1 이매년죽어나간다. 그곳으로유형을떠나는것은아나키스트들이다.

¹⁹ 여기서마지막으로스페인감옥에서자행되는아나키스트들에대한고문에대해말해야한다. 처음에우리들은그런만행이가능하다고믿지않았다. 3 일간의구타, 나사박힌철모씩오기, 손뿔뿔기등. 그러나아나키스트들이처음으로카노바스(Canovas) 장관을살해하고, 지속적으로여왕을위협하고, 결국여왕이이일에개입했을때, 그들은명백한사실과의사의증언앞에굴복해야했다. 그후에여론이비등하였고, 고문당한자들중에서몇명이석방되었다. 고문당한후에무기징역을선고받았던사람들은지금모두자유의몸이되었다. 고문당한사람들중의몇몇은런던에우리와함께있다.

를기만할수있고현지배계급의잔인성이민중의정신에흉터를남겼으며 위에서지배하는진흙탕으로부터사방으로오물이된다고해서젊은전문가인여러분들은봉기하는민중에게등을돌리겠습니까?

정신속에서완성된심오한변혁은사유의영역에만머무를수없으며, 행동의영역으로이동해야합니다. 이것은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 일찍사망한젊은철학자마리-장기오 (M.-J.Guyau) 의 『의무와강제없는도덕에관한시론 (Esquisse d'une morale sans obligation ni sanction)』은지난 30 년간발표된것중최고의저작중의하나입니다. 이저서에서정당하게언급한것처럼, 사유와일사이에분명한심연은없습니다. 적어도현대의궤변에익숙하지않은사람들에게는그렇습니다. 사유는일의시작입니다.

모든나라에서모든가능한형태로, 아나키즘이수많은저항활동을불러일으키는이유는바로이것때문입니다. 우선자본과국가에대한개인의저항이고, 다음에는동맹파업과노동자폭동형태의집단적저항입니다. 그외에도다양한유형의저항들이의식속에서도, 생활속에서도, 대중적봉기즉혁명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러한관계에서사회주의와아나키즘은일로이어지는사유인‘이념-힘’의발전을따라갑니다. 이런발전은거대한민중봉기가도래할때언제나관찰됩니다.

바로이것이, 모든치열한저항은아나키즘때문이라는것이우리의입장에서는오만이고, 다른쪽의입장에서는오류가되는이유입니다. 지난이십오년간일어난유사한현상들을다시살펴보면우리는그것들이모든곳에서유래하였음을알게될것입니다.

전유럽에걸쳐많은노동자와농민폭동이일어나고있습니다. 과거에 ‘팔짱끼전쟁’이었던동맹파업이이제는연속적으로폭동으로 옮겨가고, 때로예를들어, 미국, 벨기에, 안달루시아에서처럼¹⁵ 큰규모의봉기가되기도합니다. 봉기로이행하는파업형태의폭동은유럽에서처럼신대륙에서도수십을헤아립니다. 다른한편개별저항의행동들은가능한모든형태를취하고, 모든혁명적정당은그것을사용합니다. 우리앞에다음과같은운동가들이있습니다. 트레포프를저격한젊은여류혁명가이자사회주의자인베라자슬리치 (Ве́ра Ива́новна Засу́лич), 독일황제를저격한사민주의자호델 (Emil Max Hödel) 과공화주의자노빌링 (K.E.Nobiling), 스페인왕을저격한통제작노동자오테르, 이탈리아왕의살해를기도했던종교적마치니주의자인파사난테 (Passanante) 등입니다. 그리고또우리는아일랜드민족주의자들이 - 이들은사회주의와아나키즘모두를좋아하지는않습니다. - 조직한아일랜드에서의농업살인과런던의폭발을볼수있습니다. 우리들은러시아의젊은세대를보니

렇습니다. 내부에강한힘은결국은가스, 용해된마그마그리고뜨거운재의분출을방해하던암석을뚫고나옵니다. 혁명도그렇습니다.

사유방식에서의유사한변화는인간을다루는과학에서도실현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알고있는것처럼한때역사는황제의역사였습니다. 하지만이제역사는민중과유명한개인들의역사가되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역사가는, 여러민족의구성원들이특정한시대에어떻게살았는지, 그들의신앙과존재수단은어떠했는지, 그들은어떤사회적이상을그렸는지, 이상을성취하기위해그들은어떤수단들을갖고있었는지알려고노력합니다. 전에주목을받지못하던이모든힘의활동은위대한역사적현상을규명하기위한열쇠를제공합니다.

바로이것과똑같이풍속을연구하는학자도이러저러한법전을연구하는것으로만족하지않습니다. 인종학자처럼, 그는일관된유형의제도발생을규명하려고노력합니다. 그는수세기동안진행된제도의발전을추적하려애씁니다. 그래서그는문자로기록된법보다는오히려모든시대의이름없는민중들의독창적창조성이표현되어있는지방관습, 즉‘관습법’을연구합니다. 이러한경향속에서오늘날완전히새로운과학분과가만들어지고있습니다. 이새로운분과는멀지않아학교에서우리에게주입된모든개념들을폐지하고, 자연과학이자연을설명하는방식으로역사를설명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정치경제학, 즉초기에민족들의부에대한연구였던경제학은이제 **개인들의부**에대한연구가되어가고있습니다. 경제학은한나라가얼마나큰규모로무역을하는가에관심을갖기보다는오히려농민과노동자의오두막에빵이충분한가에관심을갖습니다. 경제학은궁핍과산골마을집의문을모두두드리며, 부자에게도가난한자에게도‘생활필수품 그리고사치품에대한여러분의수요는어느정도충족되고있습니까?’라고묻고있습니다. 인류의 10 분의 9 는가장긴급한것도공급받지못한다는것을확인한경제학은바로그질문을, 즉동물혹은식물을연구하는생물학자가스스로에게제기했던질문을던지고있습니다. 그질문은‘어떤방법으로모든사람의수요를최소의비용으로충족시킬수있을까? 어떤방식으로사회는개인에게, 궁극적으로모두에게최고의복지와행복을보장할수있을까?’입니다. 경제학의변화는이러한경향속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오랫동안경제학은몇몇부자들의이익을위해연구된현상들을단순히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이제그것은진실한의미에서의과학, 즉인간사회의생리학이되기를열망하고있습니다.(더사실대로말하면, 이를위해필요한요소들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

우리는과학에서새롭게만들어지는일반적시각, 새로운철학이지금까지어떠했는지를보았습니다. 사회의과거와현재삶에대한새로운이해

¹⁵ 또한밀라노와시칠리아에서도그렇다.

수단이, 미래에대한새로운관점이아나키즘의이름으로만들어지고있습니다. 게다가이모든것은조금전자연에대한연구를근거로언급했던정신의세례를받았습니다. 이렇게아나키즘은새로운세계관을구성하는요소중의하나입니다. 바로여기에아나키스트들이위대한사상가들과우리시대의흐름과많은접촉점을공유하는이유가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지혜가소수에의해주입된개념들로부터해방되는정도에따라, 인간의지혜가노예적과거가채운족쇄를건어버리는정도에따라, 사회에대한새로운개념이만들어집니다. 이소수는지배를강화하기위해애쓰고, 사제, 군대, 사법권그리고이지배를영구불변하게하기위한노력의대가로돈을받는학자들로구성됩니다. 그러나새로운개념의사회에는위와같은소수의사람들이들어설자리가없습니다. 지배하는소수를만들지않으면서도지난세대의노동으로축적된모든사회적자본을소유합니다. 이자본을모든사람들을위해사용하도록조직된사회가이미우리앞에그려지고있습니다. 이사회는개인적능력, 자질그리고힘의무한한다양성을포함하고, 어느누구도배제하지않습니다. 또한이사회는이런다양한힘들의투쟁을원하기도합니다. 왜냐하면다양한견해들이자유롭게논의되고자유롭게투쟁할때, 기존의어떤권력도한쪽으로치우치지않을때, 바로그때가인간의지혜가가장위대한발전을이룩한시대임을인식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사회는과거에축적된재산에대한, 모든구성원의동일하고실질적인권리를인정합니다. 이사회는착취자와피착취자, 통치자와피통치자, 지배자와피지배자의구분을알지못합니다. 이사회는자신의환경속에서조화로운합의를실현하기위해자유로운자기주도, 자유로운활동, 자유로운연합을발전시키는것을사람들에게호소하는방법으로노력합니다. 동시이사회전체의대표자라고하는권력에모든구성원을종속시키는방법과획일화를실현하려는시도를거부합니다.

모든형식과가능한수준에서모든가능한목표를갖는그런사회는자발적인연합의최대의발전을, 이와더불어개인의가장완전한발전을추구해야합니다. 이연합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 그내부에지속성의요소들을갖고있으며, 무엇보다모든사람의다양한열망에적합한형식들을매순간수용합니다. 이사회는법때문에경직된기존의모든형식들을거부합니다. 이사회는여러다양한힘과영향사이의지속적이면서도변화하기쉬운균형속에서조화를찾습니다. 이들힘과영향은각각고유의길을잡니다. 그러나이들전체는자유롭게발현되고, 상호간의균형을유지하는능력덕분에진보의증표로서기능하게됩니다. 그리고이러한경향속에서자신의에너지를표현할수있는가능성을인간에게제공할것입니다.

그러한사회적표상과사회적이상이새로운것이아니란사실은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 씨족제도, 마을공동체, 초기수공업조합혹은길드, 심지어초기에나타난중세도시민주정치와같은민중들의제도를연구할때,

몇말씀더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자유’의남용’을겁내지않습니다. 아무것도하지않는사람들만이오류를범하지않습니다. 복종만할줄아는사람들은스스로자신의길을찾는사람들만큼의혹은그보다더많은실책과오류를범합니다. 후자의사람들은사회의교육을받았지만, 자신의이성이이끄는방향으로행동하려고애씁니다. 잘못이해되고특히잘못해석된개인의자유에대한이념은, 특히연대성의개념이충분히수립되지못한곳에서, 사회적양심을분노하게만드는행위로이어질수있음은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 이런일이일어날것이라고미리가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그렇다고이것이자유의원칙을전면적으로거부하기위한충분한이유가될까요? 해방된출판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검열을옹호한다는사람들이있습니다. 단일성과훈육을유지하기위해진보적인당의당원들을단두대에서처형한다는사람들이있습니다. 자유의남용이이런사람들의견해에찬성해야하는충분한이유가될까요? 1793년의경험¹⁴이보여주듯이결국이것은반동세력의승리를준비하기위한가장좋은수단입니다.

반사회적행동을보고우리가할수있는유일한것은‘개인’은자신을위해, 국가는모두를위해’와같은규칙을거부하고, 우리의의견을공개적으로표현하는충분한용기를스스로찾는것입니다. 물론이것은투쟁으로발전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투쟁은삶입니다. 그때그런투쟁은우리가대부분의행위에대해, 이미확립된개념의절대적영향아래에서하는것보다, 더정당한평가를할수있게합니다. 이를통해통용되고있는많은도덕개념들은재평가되어야합니다.

사회의도덕적수준이우리사회에서와같은단계로추락할때, 그런사회에대한저항은우리가아주싫어하는형태를갖게될것입니다. 그러나이것이모든저항을비난해야하는충분한이유가되지는않습니다. 우리는이점을미리생각해야할것입니다. 물론 1789년에잘려창에매달린머리는우리를심히불쾌하게만듭니다. 그러나그런것들은, 빅토르위고(V.Hugo) 가우리에게말했던, 낡은왕정체제와감옥이낳은교수대의산물이나닌가요? 1871년티에르(L.-A.Thiers)가자행한 3만 5천명의파리시민학살과파리봉쇄가프랑스민중의성격에너무큰잔인성을남기지않았기를우리는바랍니다. 최근의재판에서드러난상류계급의도덕적타락이국민의심장을결정적으로부식시키지않기를우리는바랍니다. 우리는이것을바라고, 이를위해협력할것입니다! 그러나이런희망이우리

¹⁴ 역주 - 프랑스혁명의결과로 1793년에국민공회는공화정을선포한다. 그러나로베스피에르의자코뱅파는국민공회에서혁명세력중하나인지롱드파를숙청하고, 공안위원회를중심으로혁명정부를수립한다. 결과적으로로베스피에르는많은사람들을단두대에서처형하는공포정치를실시하게되었다. 그러나공포정치가계속되자로베스피에르는반대파에의해숙청되어단두대에서처형당한다. 이사건이혁명력 2년테르미도르 9일어일이었다고하여‘테르미도르반동’이라고부른다.

의도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민중에게는 자신의 이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의 주변에 진취와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¹³ 건설은 **민중적자기주도에의해서만**,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한도시에서 만이라도 건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고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 현학적으로 말하면 **분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산은 **분배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당은, 사회주의자들마저도 당의 훈육을 위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주도권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였습니다. 모든 명령은 중앙과 위원회로부터 나왔고, 조직의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방조자들은 복종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모든 교육 체계, 모든 거짓 역사, 모든 납득할 수 없는 과학이 연구되었습니다.

납고해로 운반식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개인들과 집단 속에 자기주도의 정신을 각성시키려는 사람들, 이원리를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토대 위에 성공적으로 놓은 사람들, 생명은 다양성 속에 심지어 투쟁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일성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들이 미래의 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눈앞의 혁명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¹³ 1871 년의 파리로코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학자들도, 민중의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노동자 계층 연합의 지도자들도 파리로코뮌에게 코뮌을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독립 도시에서 (독립 도시는 프랑스가 근본적이며 사회주의적인, 혹은 적어도 평등한, 공화국이념에도 달할 때까지 기다릴 의도가 없음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한 공화국의 실현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파리로코뮌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이념은 1793 년 이래 파리에서, 민중 속에 살아 있었다. 1848 년에 프루동이 이이념을 발전시켰다. 이념은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절반 정도 인식되어 - 절반은 감정적으로 절반은 생각으로 - 동지를 틀게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코뮌을 선언하였고, 그것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 뜻밖의 일이었다. 그들은 국가로서의 프랑스에 관심이 없으며, 그들은 사랑하는 도시 파리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1793 년 동프랑스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지역의 로베스피에르와 마라 (Jean Paul Marat) 가 새로운 비봉건적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직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구 체제의 관리들을 축출하였고, 무장하였으며, 공유 토지를 되찾고, 법령집을 소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파리의 블루 칼라들, 노동자들은 도시의 군사 방어 조직을 구축하였고, 우편 제도를 조직하였고 (이에 대해 영국 특파원들이 감탄한 바 있다.), 공동 취사를 (불행하게도 마지막에 가서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평등 사상과 코뮌 사상이외에, 코뮌이 소유자들에게서 주택을 몰수하고, 코뮌이, 즉 노동자들이 모든 민중의 취사를, 그리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의 생산을 조직해야 함을 이시기 파리로코뮌들이 어렵게 깨닫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코뮌은 괴멸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코뮌은 35,000 명이 아니라, 그보다 세 배 더 많은 방위군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스마르크 (Bismarck) 와 티에르 (Thiers) 도 코뮌을 군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었다. 물론 자본 계급, 심지어 중산 계층 출신의 선명성이 뚜렷한 혁명가들에게서도 이런 것을 전하기 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파리로코뮌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었다. 사회 혁명은 각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의 사회를 창조하려는 민중들의 열망을 모든 곳에서 발견합니다. 물론 지배하는 소수는 언제나 열망을 방해했습니다. 모든 민중 운동은 많은 건전한 이러한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특징적인 종교적 표현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세례파에게도 그들의 선배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세기 말까지 이런 이상에는 언제나 교회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야 비로소 그 이상은 종교적 겹대기를 벗어 버리고, 사회 현상의 연구에 기초한 아나키즘적 사회 개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러한 사회적 이상은 즉각 자의 의지만이 (의의지는 개인 각각이 체험한 사회적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적 이상은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형태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공산주의의 필연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 덕분에 공산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적 노예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자유에 대해서 논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자유를 말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는 한!

이와 같은 시인의 말은 이미 노동 대중의 생각과 우리 시대의 모든 문학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굴복시키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착취를 권리라고 주장하던 과거의 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수탈하는 현대적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 세계와 신 세계의 수백만 사회주의자들도 이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조차도 그러한 수탈 방식은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과거처럼 무모하게 그것을 옹호하려 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주장은 우리가 아직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 소유 방식의 치명적 결과를 부정할 것인지도,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한 그들은 이 권리를 이용하지만, 그 권리에 대한 근거를 어떤 원칙에 따라 주장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리는 수 세기 동안의 창조적 작업을 보여주는 도시이고, 전 국가적 천재성의 산물이며, 20 혹은 30 세대에 걸친 노동의 결과입니다. 파리를 장식하고, 건강하게 하며, 먹여 살리고, 사상과 예술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일하고 있는 이 도시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파리의거리를장식하는궁전들이현재법적인소유자들에게 속한것이라고이모든것을창조한사람들을설득할수있겠습니까? 이모든 가치는우리모두에의해창조되었고, 우리가없다면아무것도없었을것입니다.

민중을가르친다는교활한훈육자들의노력덕분에이런기만은여전히 한동안은유지될수있을것입니다. 노동자대중스스로도이에대해생각하지 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사유하는소수의사람들이모든사람앞에이문제를제기하고제시하는순간, 그에대한답변은의심이있을수없습니다. 민중의지혜는이렇게대답할것입니다. ‘물론, 개인이이모든부를소유한다면, 그것은모든사람들을착취하는것일뿐이다.’라고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농부가주면 20 km안에있는모든땅의역사를이야기할수있다고할때, 그농부를설득하여지주가소유한땅들이합법적으로지주의소유가되었다고믿게만들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빠하며땅을경작할농민들이주변에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 그토지들이특정지주의영지와정원이되는것이더좋다고그농민을설득할수있을까요?

노동자도광부도이모든거대한철도와석탄광의착취와강탈의의미를 이해하고, 부유한주인들이합법적강탈의방식으로광과공장을굴어모았다는것을조금씩깨닫기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공장과광산이진정한정의에따라현재의소유자들에게계속하게되었다는것을믿으라고공장노동자혹은광부들에게강요할수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노동자들을설득하기보다는오히려부자들이강탈의합법성을확신하도록만들기위해노력했습니다. 이런경제학자들의계락을대중이믿은적이있었겠습니까? 가난에찌들고사회특권층의지지를전혀받지못한농부들과노동자들은단순히본성의흐름에따라행동했습니다. 그들은때때로폭동을통해서만자신들의권리를주장하였습니다. 가령도시노동자들은, 자본의사적소유가많은부를축적하여그것을모든사람에게분배함으로써보편적이익을위해봉사할수있는때가올것이라고생각했을수도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이제많은다른것들과마찬가지로, 이러한망상은사라지고있습니다. 노동자들은예나지금이나여전히착취당하고있음을확신하기시작하였습니다. 또한자신들의노력으로축적된부중에서작은부분만이라도주인들에게서빼앗기위해서는, 폭동이나파업을감행해야한다는것을확신하기시작했습니다. 즉굶주리거나감옥에가는것을감수하던지아니면제국, 황제혹은공화국군대의총탄을맞는다는것입니다.

이와더불어또다른, 더욱심각한현재체제의결함이점점분명하게드러나고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에서삶과생산을위해필요한모든수단들(토지, 주택, 식량, 생산도구)은소수의손에있으며, 이소수가밀을재배하고집을짓고옷감을생산하는것을방해합니다. 바로여기에현재체제의결함이있습니다. 우리의기술과기계는모든사람에게모든것을충분히공급

전유형이어떠하든지, 그것은지금이미깨어나기시작한비국가적자유사상들의특징을갖게될것입니다. 이운동의깊이는국가와관련된편견들과단절하는이성적인간의숫자에, 낡은제도를파괴하는그들의에너지에, 그들이사회에주는인상의강도에, 대중의이성이그리는해방된사회체제의선명도에달려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이미지금, 예를들어, 무無국가적자유사상의각성은프랑스사회에상당한자극을주었고, 프랑스에서미래의혁명은어떤경우에도자코뱅식의중앙집권적혁명이되지않을것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물론혁명이 20 년전에일어났다면그럴수도있었지만말입니다.

아나키즘이어떤개인이나집단의날조가아니라우리시대의모든사상운동으로부터나온것이라면, 미래혁명의결과가어떻게되든지, 우리는이혁명이중앙집권적이며독재적인 40 년대의공산주의로도, 국가집산주의로도우리를인도하지않을것이라고확신할수있습니다.

아마도‘제 1 단계지점’은결국 20 년전에이첫번째발걸음을이해했던것과동일한것이되지않을것입니다.

내가이미지적한것처럼우리의관찰에기초하여판단할수있다면, 지금모든사회주의당앞에가장거대한과제가나타날것입니다. 그것은사회경제적이상을이미대중의생각속에서시작되고있는개인의자유를향한운동과어떻게일치시키는가하는것입니다. 선행한혁명들에서는민중적자기주도의정신을각성시키는것을충분히배려하지않았습니다. 민중적자기주도의각성이없다면, 가장거대한경제적변혁의완성가능성도 - 도시와시골모든곳에서 - 전혀없음을사람들은이제이해하기시작하고있습니다. 사실인민대중속에조직적인창조적자기주도의부재는과거의모든혁명을좌초시킨암초였습니다. 민중은공격에관한판단에서매우강한면모를보이지만, 새건물의건설에서자기주도와창조적사유를보이지 못했습니다. 민중은바리케이드에서싸우고, 궁전을점령하며낡은지배자들을쫓아내었지만, 교육받은계급에게즉자본계급에게새로운건설의과업을위임하였습니다. 자본계급에는자신들만의이상이있었습니다. 그들은자신들이원하는것을어느정도알고있었고, 고유의이익을위해사회적폭풍속에서무엇을끌어내야할것인가를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혁명이구체제를타파하자마자자본계급은 **자신들에게**유리하도록건설에착수하였습니다.

혁명에서파괴는혁명의업무중일부일뿐입니다. 그외에도혁명은새로건설해야합니다. 이건설은새로운것을철저히사유할수없는사람들에의해서책에서배운처방에따라진행될수도있고, 구체제의옹호자들이민중에게강요한낡은처방에따라진행될수도있습니다. 혹은개혁의새로운원칙위에서진행될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독자적건설은 - 각지역에서, 지역에고유한복잡한관계속에서원칙의실천적실현을모색하는대중이습득한몇가지공통된원칙의영향아래에서 - 각각의마을과각각

추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개인능력의 완전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 동료들 중 하나가 올바로 표현한 것처럼 식량과 의복에 대한 인간의 1 차적이고 주된 욕구가 충족될 때, 삶을 위한 투쟁과 자연력에 대한 투쟁이 간단해질 때, 존재의 유지를 위한 수천 가지의 자살한 수고들이 개인의 시간을 집어삼키지 않을 때 일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성, 예술적 취향, 발명의 재능, 그리고 인간의 모든 능력들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서로간의 투쟁속으로 사람들을 밀어넣는 개인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개성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모든 인간능력의 완전한 개화, 인간속에 있는 모든 창조성의 최상의 발전, 이성과 감정과 자유의지의 최고의 활동을 위한 최상의 토대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먼 미래에 이상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지금 우리 자신들 사이에 부분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도 지체하지 말고 그 이상을 가능한 넓게 확대시켜야 합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사회가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의 노력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견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든 개인적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무엇보다 현대 사회 체제를 연구하여, 현 단계의 발전에 고유한 지향과 방향을 찾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이 노력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금 그리고 특히 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이 노력들의 발전을 억압하는 제도나 편견을 폐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혁명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력들이 발전되게 함으로써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립**하는 모든 것은 진보를 저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회가 **거쳐야만 하는** 중간 공격 단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제 1 단계 지점으로 제시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결국 그들은 1 단계를 성취한 후에야 참된 길로 나설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류 진보의 참된 성격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전쟁과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적절하지 못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구르는 공도 아니고, 행진하는 군대 행렬도 아닙니다. 인류는 전체이며, 그것의 발전은 인류를 구성하는 수백만 명의 발전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꼭 비유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무생물의 운동 법칙이 아니라 생물의 발전 법칙에서 비유의 재료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 발전에서 각각의 발걸음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들의 동등하게 작용하는 정신 활동이며, 그것은 구성원 각각의 자유의지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20 세기가 우리에게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발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자본가들과 국가가 모든 곳에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는 어렵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풍족하게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굶주린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 상의 밀, 식량, 옷을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작되지 않으면서도 무장 경찰과 재판관들의 보호를 받는 지주의 토지와 영지 그리고 숲을 보면서 현대 국가의 농민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 판을 경작하여 시골에 부족한 밀을 재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라고 농민이 생각하는 것은 괜한 일입니다.

영국에서 늘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일이 없어 일주일에 3 일을 쉬는 광부는 석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자신이 석탄을 많이 팔 수 있으며, 각 가정에서 난로를 때면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장에 일이 없을 때 노동자는 하는 일 없이어슬렁거립니다. 그는 또한 일 없이어슬렁대는 석공을 만나고,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제화공 등을 만납니다. 노동자는 사회에 무엇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절망적인 빈민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맨발로 다닌다는 것을, 노동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건설하고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빈민들에게 비싼 값으로 빌려주고, 굶주린 노동자들을 가장 싼 임금으로 공장에 내몰기 위해서입니다.

학자들은 밀 재배와 옷감 생산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하여 두꺼운 책을 쓰고, 이런 것을 예로 들어 공장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 이외 영국, 프랑스, 독일 혹은 러시아에서 그토록 많이 발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학자들은 답변하느라 진땀을 뺀 것입니다. 많은 밀이 매년 러시아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에서 재배되는 밀이 모두 러시아에 남는다면, 연간 1 인당 165 kg의 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양입니다. 숲이 아주 많습니까? 러시아인의 절반은 아주 좁은 통나무집에서 살며, 한 방에서 열명씩 잠을 잡니다. 도시에 집이 너무 많은가요? 그렇지요, 궁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된 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한 방에서 다섯 내지 열 명이 살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 많은가요? 수백만의 사람들은 한 해에 단 한권의 책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한 가지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천 배는 더 많습니다. 그것은 관리입니다. 관리를 너무 많이 제조해내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만은 학자들의 책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건이 부족하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사십시오!

학자들이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용주들과 국가에의 해파산당한 노동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 시스템에서 과잉 생산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프루동(P.-J. Proudhon) 이 지적한 것처럼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구매하고 동시에 목에 매달린 때의 식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 체제의 본질상, 노동자는 노동의 결과인 행복을 절대로 향유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나라의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수는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인 이 더 많은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 모든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업주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필연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부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가난 위에 건설되고, 이를 위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벌 수 있는 것의 일부만을 받으며 자신을 팔고 일할 준비가 된 노동자들을 언제나 준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가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경제 체제의 특징들이 이것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체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아의 공포가 강요하지 않는다면, 누가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체제의 이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특징들은 그 내부에 결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기술 발전이 낙후된 나라들 사이에서 제 1 의 산업 국가로 있는 동안, 높은 가격으로 면직물, 모직물, 비단, 철, 기계, 일련의 사치품을 판매하는 동안, 이들 나라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노동자들이 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높은 가격은 이들 나라가 구매자들의 돈으로 부유하게 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조건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30 년 전에는 뒤떨어졌던 나라들이 이제는 면직물과 모직물, 비단, 기계, 사치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업 분야에서 그들은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을 추월하기도 하였습니다. 먼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들은 이미 선배 국가들과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배 국가들과 그들의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거대 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인도, 세르비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본인을 모방하여 중국인이 사라사천, 비단, 철, 기계로 세계 시장을 범람시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역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공산주의 제도가 국가의 관습에 의해 추락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채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유세장에서 만나 후보자들의 거짓 약속이나 맹목적인 연설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국가는 사회적이 해를 갖는 모든 일들을 관리합니다. 국가는 개인들이 같은 시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죄인을 벌함으로써 개인이 저지른 해악을 교정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국가는 굶주리는 자에 대한 보살핌, 교육, 적으로부터의 방어 등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배고파 죽거나 자기 자식들을 찢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경찰의 업무란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모릅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과 그들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각입니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반사회적 열정을 극단으로까지 허용하지 않기를 절대 자에게 간청합니다. 예전 절대자는 신이었고 지금은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다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 도시 혹은 농촌 의회와 같은 어떤 입법의 회에도 공산주의 체제의 조직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민중 자신의 독창적 지혜를 통해 **창조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위에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이 없다면, 공산주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대가족에서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는 사회적 사안에만 따라 사람들 사이에 수천의 접점을 창조하는 것 외에 다른 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각각의 거리, 몇 개의 건물, 구역, 도시 공동체라는 가장 작은 단위 별로 독립적이며 고유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사회가 물질적 풍요, 호화로운 생활, 학습, 오락 등 모든 욕구의 충족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 조합과 단체들의 그물로 덮인다면, 그때야 비로소 공산주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순순히 지방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학회, 자전거동회, 해양인명구조동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전국민적인 것, 그리고 국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 낼 사회적 관습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관습의 핵을 모든 가능한 징벌 수단보다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호 협력 정신의 발전을 어떤 삶의 형식으로부터, 어떤 사회 체제로부터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이 견해는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이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다른비도덕적교육, 즉현존하는국가제도로부터나오는교육이그힘을방해하지않는경우에만사회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

국가의교육은영향력을전혀행사하지못하거나, 해롭기까지도합니다. 기독교도덕을봅시다. 어떤다른도덕이기독교의도덕처럼이성에대한강한영향력을가질수있겠습니까? 기독교도덕은십자가에달려쳐형된신의이름으로말하고, 불가사의의힘을, 순교의시학을, 사형집행인의죄를용서할것을청원하는위대함을수단으로행동합니다. 그러나국가제도의영향력은기독교보다더강한것같습니다. 기독교는본질상로마제국에대한유대인들의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사실기독교는로마에길들여져로마의원칙, 습관, 언어를수용하였습니다. 로마법의원칙들이기독교에침투하였고, 그결과역사에서기독교는국가의동맹자가되었습니다. 하지만국가는초기기독교가추구했던반반공산주의적제도의가장열렬한적입니다.

내각의명령에따라수립된도덕교육이기독교에없었던창조적힘을가질것이라고우리는단 1 분간이라도생각할수있을까요? 교육이진정인간을사회적으로만들기를추구한다해도온갖반사회적관습과제도의충합에서나오는다른일상적교육이앞의교육과대립한다면, 교육은무엇을할수있겠습니까?

세번째요소가남습니다. 그것은사회적감정이표현된행동들이관습으로흡수되고, 본능이되도록영향을행사하는제도입니다. 역사가우리에게보여주는것처럼, 이힘은절대무기력하지않았고, 절대양날의무기가아니었습니다. 이힘이목적달성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그것은좋은관습이조금씩정체되고결정화되어범할수없는종교로변하고, 개인을집어삼켜모든행동의자유를앗아가며, 개인이계속적인발전을방해하는것들과싸우게만드는때에만그럴것입니다.

사실상, 과거에발전과진보의요소로혹은인류의도덕교육과지식교육의무기로사용되었던모든것은상호부조원리의실천으로부터, 그리고사람들사이의평등을인정하고, 서로연합하고, 생산과소비를위해단결하고, 공동의방어를위해조합을결성하고, 그들사이에발생한분쟁의해결을위해중재자에게요청하던관습으로부터유래하였습니다.

이제도들은민중이자신의자유를쟁취한그시대에민중적창조의산물로서탄생하였습니다. 이들이역사에서가장큰발전을이룰때마다사회의도덕적수준, 물질적행복, 자유, 지적진보, 개성의발전도제고提高되었습니다. 반대로, 해외정복혹은국가에관한편견이발전하고, 그결과사람들이점점더지배자와피지배자, 착취자와피착취자로나뉘어질때마다, 사회의도덕적수준은낮아졌습니다. 다수의행복대신소수의손쉬운돈벌이가나타났고, 시대의보편정신은급속히타락하게되었습니다.

이런이유로산업위기, 즉정체의시기가점점더자주오고, 더오래지속되고있습니다. 어떤생산분야에서정체는거의항구적인것이되고말았습니다. 이때문에유럽인들은동양과아프리카시장에서점점더많은전쟁을수행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이유로유럽의전쟁, 즉시장때문에발생한유럽인들사이의다툼은그치질않고, 모든유럽민중의머리위에위협을드리우고있으며, 그들을군비경쟁으로파산시키고있습니다. 이전쟁은아직발발하지않았는데, 그것은국가가더깊이부채에빠지는것이돈장사하는금융업자들에게유리하다는이유때문입니다. 하지만이고리대금융자들은전쟁에서이익을본다면, 군중을부추겨서로를죽이게만들것입니다. 그사이에금융계의황제들만이부자가될것입니다.

현대경제체제에서모든것은긴밀하게연결되어있고, 모든것은서로 얽혀있으며, 모든것은우리를둘러싼산업체제와상업체제의필연적붕괴로귀결될것입니다. 이체제의종말은시간문제일뿐입니다. 그시간을세기의단위가아니라연단위로셀수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이시간의문제라면, 그와함께그것은우리고유의역량의문제이기도합니다. 게으름뱅이는역사를창조하지못합니다. 그들은수동적으로감내할뿐입니다.

바로이것이앞선세대의노동으로이룩된모든부를사회로환원할것을요구하는단체들이모든문명국에서결성되는이유입니다. 토지, 탄광, 공장, 주택, 교통수단등의사회화는이단체들이공동으로제기하는전투적요구사항이되었습니다. 유산계급과지배계급이탄압의수단을애호하지만, 탄압만으로는봉기하는이성의승리를막을수없습니다. 수백만노동자들은아직움직이지않고, 착취자들에게서토지와공장을무력으로빼앗지도않았습니다. 그이유는그들이국제적운동의지원을받아현재체제의붕괴를위해돌진하기에적절한시간, 즉 1848 년에나타났던것과비슷한시간을기다리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러한순간은조만간에나타날것입니다. 1872 년이후, 특히국제노동자조합이정부들에의해괴멸된그때부터, 노동자들사이의국제적연대의정신은큰노력과성공을거두었습니다. 국제노동자조합의지지자들도이점을명료하게이해하지못하고있습니다. 연대는일, 사상, 감정, 지속적인국제교류에정착되었습니다. 반면에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금권정치는서로적대하고있으며, 매순간유럽을무력충돌에이르게할수있습니다. 한가지의심의여지가없는사실이있습니다. 프랑스에서다시코뮌이선포되고사회혁명이시작되는그날에, 프랑스는다시독일, 이탈리아, 영국을포함하여전세계민족의공감을, 즉프랑스가 1848 년과 1793 년에누렸던공감을얻을것입니다. 그리고사람들이생각하는것보다공화혁명에더가까운독일이, 유감스럽지만자코뱅식혁명의깃발을올리고, 고양된발전을경험한젊은나라답게격렬하게운동에돌입한다면, 프랑스로부터는공감을얻고, 용감한혁명가들을사랑하고오만한금권정

치를 혐오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 두 대적적인 나라가 혁명의 순간에 형제로서 함께 간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혹은 러시아에서의 혁명 운동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전세계 노동자들의 심장에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 불가피한 혁명적 폭발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쟁의 위험은 프랑스로 하여금 급작스럽고 단호하게 혁명의 길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관심을 거짓 애국주의의 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유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많은 정후들은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에도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과학 일반에 대해 말하면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변화입니다. 추구하는 사회 조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애매 모호한 관점은 그들의 에너지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생 초기인 40 년대에 사회주의는 종속적 공산주의의 형태로, 즉 단일하고 통일된 공화국, 독재, 경제적으로 대로 옮겨간 정부 주도적 자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의 이상은 그러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자유 사상가든 그 시절의 사회주의자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경제적 관계의 개혁에 착수한다면, 모든 강력한 정부에 심지어 제국에 종속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십 년 동안, 특히 라틴 국가와 영국에서, 사회적 인식의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 주도적 공산주의와 기독교적 공산주의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제 노동자 조합에 새로운 방향인 집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집산주의는 처음에 노동수단의 집단적 소유, 즉 사회적 소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수적인 대상들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집산주의는 각 집단이 구성원을 위한 분배 방법을 집단적인 방법 혹은 개인적인 방법 중에서 원하는 대로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공장, 토지, 철도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조합을 이루어 공동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조합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처리합니다. 조합이 선택하는 대로, 공동으로 가계를 꾸리며 공동으로 살거나 혹은 임금을 분배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70 년대 초기에 집산주의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사이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기욤(J. Guillaume)은 자신의 저서 『사회 구성론 (Idées sur l'organisation sociale)』에서 이 시스템을 아주 훌륭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당시 어떻게 이해되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국가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이 시스템을 아나키스트들이 어떻게 선택하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집산주의를 공산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중요한 자본주의자입니다.) 사시의 협정과 같은 것으로서 허기개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집산주의자들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공동 소유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구

의 이익으로 돌리는 관계와 사람들을 분리하는 대신 통합하는 제도를 창조할 것입니다.

인간 혹은 동물 사회에서 일정한 도덕적 수준이 어떤 수단을 통해 유지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세 가지 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의 억압과 형벌, 도덕 교육, 생활에 폭넓은 상호 부조의 적용입니다. 이 세 수단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무용성은 현대 사회가 처한 흉악한 상황에 의해, 혹은 혁명의 불가피성에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추구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강제 시스템은 우리를 공장에서의 강제 노동 상태로 이끌었고, 정치 영역에서는 국가로, 즉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관계의 파괴로 이끌었습니다. (1793 년 자본주의자들은 왕권에 대한 싸움의 수단이었던 관계들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목적은 시민을 모든 관계에서 중앙 권력에만 종속된 무정형의 신민 臣民 대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과 형벌은 현대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불행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데는 무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법과 형벌은 사회가 예전에 갖고 있던 수준조차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어떤 선행 요건이 문명 사회에서 익명으로, 고위층과 법의 비호를 받아 자행된 범죄들을 모두 우리 눈앞에 펼쳐 보였다고 한다면 사회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2 월 2 일의 나폴레옹 쿠데타¹¹ 혹은 코뮌에 대한 피의 폭력, 혹은 강제 노동 수용소와 술리셀 부르크¹²에서 자행된 황제의 만행과 유사한 거대한 정치적 범죄와 관련해서, 책임자들은 절대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크라스코프(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ич Некрасов)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도둑들의 만족을 위해 좀 도둑을 때린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권력이 ‘죄인들에 대한 형벌’을 수단으로 사회적 도덕성을 높이려고 시도하지만, 권력은 재판소와 감옥에 새로운 범죄를 만들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강제 의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의 강제 제도를 폐기하고, 폐지하는 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급한 도덕 교육 수단들의 중요성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며, 일상의 사건에 대해 사람들 각자가 언급한 입장과 견해의 총합으로부터 나오는 수단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은 한 가지 조건 아래에서만, 즉

¹¹ 역주 - 1799 년에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1804 년 5 월 황제 세습제를 발표하고 그 해 12 월 2 일 노트르담 사원에서 황제 대관식을 거행했다.

¹² 역주 - 페테르부르크로 연결되는 네바강 발원지에 위치한 러시아의 도시로, 술리셀 부르크 요새는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

의발상지가되고, 상비군은시민을위한오락거리가되었을것입니다. 왜냐하면무기는군인을선망하는유모나아이들앞을행진하는군인들에게만필요할테니까요.

권력편에있는사람들은평범한인간들에게있는약점이없거나거의없는최상급의사람들이라고전제하는순간, 우리의상상속에서는훌륭한유토피아와멋진크리스마스동화가창조됩니다! 관리들이관등에따라서로를통제하게만들고, 가령어딘가에서국가소유의나무가바람에쓰러진경우에관청이교환할수있는보고서와왕복문서를다만 25 개로제한하는것으로충분합니다. 바람에쓰러진국가소유나무를판매하기위해, 현재통일프랑스의주무관청은 53 개의서류를교환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필요한경우에평범한관리들에대한감독을실시할수있습니다. 관리들은서로간의관계에서엄청난도덕적타락을보이지만, 지배자를뽑아야할때는지혜의화신化身이됩니다.

지배자들스스로가만든모든국가통치술은이런유토피아로충만하여있습니다. 그러나인간을너무잘알기때문에우리는그런꿈에현신하지않습니다. 우리는지배자혹은피지배자에따라서로다른두개의жат대를적용하지않습니다. 우리스스로가완전하지않으며우리중어가장뛰어난사람도권력을잡으면곧부패할것이란것을알고있습니다. 우리는있는그대로의인간을선택합니다. 그이유는우리가인간에대한인간의모든권력을미워하고, 불충분할수도있지만, 온힘을다하여그권력에종지부를찍기위해노력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파괴만으로는부족합니다. 또한창조의능력을보여야합니다. 모든혁명에서민중은언제나기만당했습니다. 왜냐하면창조에대해충분히생각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낡은것을파괴한후, 언제나민중은부르주아의미래에대해걱정했습니다. 부르주아는민중과비교하여특권을소유했고, 무엇이필요한가를어느정도분명하게알고있었으며, 그렇게하여자신들에게유리하게권력을새롭게재건하려고노력합니다.

아나키즘은권력이드러나는모든현상속에서권력을폐기하고, 종속을강요하기위한법과메커니즘을폐기하며, 모든문벌조직을부정하고자유로운협약을옹호합니다. 그러면서그것과더불어, 아나키즘은사회적관습의고귀한정수를지지하고확장하기위해노력합니다. 사회적관습의고귀한정수가없다면그어떤인간사회도동물사회도존재할수없기때문입니다. 몇몇사람들의권력이사회적관습을지지하기를기대하는대신, 아나키즘은모든사람의지속적활동으로부터나오는지지를기대합니다.

공산주의적제도와습관들은경제적곤란의해결수단으로필요할뿐만아니라, 인간을길밀하게만들고, 인간사이에서사회적관습을발전시키고지원하기위해필요합니다. 그러면사회적관습은각각의이익을모든사람

성원은자신의노동에대한대가로일한시간에따라서‘5, 10, 20 시간노동이라고기록된’전표혹은영수증형식의보수를받기를원하고있습니다. 이전표로공동상점에서각각의상품을생산하는데소요된시간의양에따라가격이매겨진모든상품을살수있습니다. 예를들어 21,000 리터의호밀을재배하는데 (평균) 400 시간이필요하다고합시다. 그러면 210 리터의호밀가격은 4 시간이될것입니다. 이런식으로석탄 16 kg의가격은 30 분이되고, 비누 500g 의가격은 5 분이된다고말할수있을것입니다.

잘생각해보면여러분은집산주의는본질상다음과같은결론에이른다는것을알게될것입니다.

— 생산수단과교육에대해서는부분적 (불완전한) 공산주의, 동시에개인들과집단들사이에는의식주를위한경쟁이존재함.

— 인간이성의작품과예술작품에대해서는개인주의.

— 이제도의약점을보완하는장치: 아동, 노약자에대한사회적지원.

한마디로우리들은여기에서생존을위한, 자선을통해약간부드러워진투쟁을보게됩니다. 즉이것은‘우선사람들을상처투성으로만들고, 그다음에그들을치료한다.’는교회·전쟁의법칙을적용한것일뿐입니다. 이경우에, 개인이 스스로생존을위한투쟁에가담하게할것인지아니면그에게국가의도움을제공할것인지를알아내기위한경찰조사만확대될것입니다.

여러분이아시다시피전표와관련된발상은새로운것이아닙니다. 로버트오언 (R.Owen) 이, 다음에는프루동이이미적용한바있습니다. 이제이러한발상은‘과학적사회주의’라는새로운이름을얻게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의실현불가능성은말할것도없고, 불편함을예감하는민중대중은이이론을제대로받아들이지않을것입니다.

첫째로, 노동에소요된시간은여전히노동의사회적유용성에대한기준을제공하지못합니다. 아담스미스 (A.Smith) 부터마르크스 (K.Marx) 에이르는모든가치이론들은가치에대한문제를지금까지해결하지못했습니다. 이이론들은소요된노동만을기초로계산된생산가치에근거한것입니다. 교환이발생하면상품의가치는복잡한양상을보입니다. 상품의가치는전에몇몇정치경제학자가생각한것처럼, 주로그것이개인의필요가아니라사회전체의필요를어느정도충족시키는가에달려있습니다.

가치는 **사회적현상**입니다. 교환의결과로서가치는 **이중적**성격을깁니다. 한편으로가치는일정한상실을, 다른한편으로일정한만족을표현합니다. 그리고양측면모두개인적현상이아니라사회적현상으로고찰되어야합니다.

다음으로현대경제체제의결함을관찰할때, 우리는결함의본질이노동자가자신의노동력을 **팔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다**는데에있음을보게됩니다. 노동자역시이것을정확하게이해하고있습니다. 일없이는 2

주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지주에게, 공장주에게 혹은 국가에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국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이익이 되는 노동에 힘을 투입할 가능성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강제에 의해, 배고픔에 의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거부하도록 강요 받게 됩니다. 노동자는 자기가 재배하거나 생산한 것들 중에서 터무니 없이 많은 부분을 주인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 심지어 자신이 생산한 이윤에 대해 그리고 생산수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권리도 희생합니다.

이렇게 자본의 축적은 잉여가치를 집어삼키는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잉여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불충분한 지불, 즉 착취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오히려 자본의 축적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이 생산한 것에 대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이익이 존중되지도 않고,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가와 관계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것이 없다면, 가령 수백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노예가 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면, 자본가는 절대로 노동력을 구매하거나 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농노제 지지자들과 공장주들의 카트코프(M.H.Katkov) 당파는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10 배는 더 많은 수백만 주민들을 배고프고 착취당한, 몇 톤에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낱품 팔이로 전락시키기 위해 분주할¹ 뿐입니다. 바로 이로부터, 현재 제의 혁신을 위해 바로 원인 자체 즉,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자체를, 그것의 결과인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은 어렵듯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모든 삶의 수단들을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즉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분배’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각자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제 노동자들은 점점 자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생산수단에 기초해서, 그러한 것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피고용 노동자로 있는 한,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의 노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민중적 지혜,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무수한 생각의 총체는,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국가가 노동력을 구매하는 고용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

¹ 지난 150 년간 영국의 귀족들과 금권 정치가들의 전술은 이런 방향에서였다. 즉 이전 술을 위해 회의는 공유지 점유법을 만들었다.(이 19 세기 동안 수백만 에이커가 점유되었다.) 최근 보어인들과의 전쟁은 흑인들의 공동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노동자 집단 숙소’로 쫓아내고, 공장 광산에서 - 기아와 형벌 때문에 - 헐값으로 일하게만 들려는 요하네스 부르크의 금광 산업가들의 요청에 따라 일어났다. 결국 흑인들은 킴벌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

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생각해 보라, 외국으로 쫓겨난 프랑스 왕이 ‘내가 없었다면 나의 불행한 종복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외친 것을!”

물론 인간이 권력 유토피아 주의자들의 묘사처럼 고상한 존재라면, 그들처럼 우리도 지배의 소멸을 받았다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고상하다는 환상에 빠져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지배자들의 덕성을 믿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예제도 유토피아 주의자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노예 소유자들이 정말로 경건한 대천사와 같다고 한다면 노예제도에 무슨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30 년 전만 해도 미국 노예 소유자들과 농노제 지지자(지주)들이 얼마나 장밋빛으로 묘사되었는지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예와 농노들을 아버지처럼 돌본다! 주인이 없으면 이게 으르고, 만사 태평하고, 분별 없는 자식들은 배고파 쓰러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노제 지지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노예들에게 강제 노동의 짐을 지우고 혹은 그들을 회초리로 다스릴 것이다! 노예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대해주고, 자기 자식들처럼 돌봐주는 것이 그의 직접적인 이익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러시아의 지주들, 미국의 신문기자, 영국의 사제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그것을 찬미하였습니까! 이외에도, 심지어 조금이라도 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노예 소유자를 벌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여행에서 돌아온 다윈(C.Darwin)은 브라질에서 들었던 불구자 노예들의 비명 때문에, 사슬에 묶인 손의 통증으로 신음하는 여인들의 흐느낌 때문에 평생 동안 괴로웠습니다. 과거 지주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선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국가 찬미자들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처럼 권력 편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현명하고 사회 적 사업에 헌신적인 사람들 이라면, 맨윗 자리에 정부와 주인들이 있는 멋진 유토피아를 창조할 수도 있겠지요! 주인은 폭군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아버지가 되겠지요! 공장은 가장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되는 운명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백린을 적린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린으로 성냥을 만들게 하여 노동자들을 독극물로 중독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굶주림과 빈곤에 살게 하거나 병으로 죽게 만드는 재판관들, 그런 짐승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변론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실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형 집행인을 찾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플루타르코스라 해도 그 축복된 시대의, 검은 돈을 싫어하는 대의원들의 온갖 덕행을 나열하기에는 어휘가 모자랄 것입니다! 훈련된 부대는 모든 선행

이것을 아주 잘 알았다고 덧붙일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유는 싸워 성취해야 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사한’ 헌법이 자유를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랍니다. 예링이한 것처럼, 강제가 자발적협약과 비교하여 사회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벤담 (J.Bentham) 의 오래된 충고에 따르면, 모든 법적 강제 의치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와 특히 간접적인 결과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톨스토이 (Lev Nikolayevich Tolstoy) 와 우리들처럼 여러분은 폭력의 사용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반사회적행위의 예방에 훨씬 더 효율적 인수천가 지 다른 수단들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국가의 지도로 이루어진 사회의 양육이나, 사회의 소심함과 나태한 생각이 이 문제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간단히 벌을 주면 됩니다. 그때는 적어도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형 집행인이 있고, 영국에서는 사형수당 1 폰트, 즉 10 루블이면 되는데,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더 좋은 것이 있지요! 1 년에 몇 백 루블 만 주면 범죄의 원인에 대해 귀족들의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베리아로 보내거나 크레스티⁹에 가두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험오스런 일입니까! 우리들에게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아나키스트들은 꿈의 세계에 살며 현대의 현실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을 너무 잘보고, 잘 알고 있는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으로부터 혹은 이 세상으로부터 유래된' 모든 권력의 문제에 대한 오래된 편견의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도끼로 찍어 내어 길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환영의 세계에 살지 않고, 인간을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 가장 좋은 인간들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상층부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권력의 균형'과 '정부에 대한 통제' 이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들은 권력편에 선 사람들이 고안한 흔한 공식일 뿐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사실, 절대로 민중이 국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도처에서 부자들과 식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조종할 뿐입니다.¹⁰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 그들에게 이

⁹ 역주 - 러시아서 '크레스티'는 '십자가'의 복수형이다. 이것은 옛테페르부르크감옥의 속칭으로, 십자가모양의 건물에서 유래하였다.

¹⁰ 영국, 미국, 그리고 여전히 스위스에서 민중이 국가적 사안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나라의 모든 작은 마을에, 작업장에, 나아가 큰 도시들에 '이와 발톱을 세워' 자신의 인간적이며 개인적인 권리를 지키고 자신과 자신의 권리가 진흙탕에서 짓밟히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굶주린 노동자들이 하이드파크로 시위행진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최근 (1886 년) 런던에서 떠들기 시작했을 때, 모든 언론이 목청을 높였다. "진정 1878 년을 (몇 년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잊었는가? 군중이 공원으로 가는 것을 경찰들이 막았던 때를. 군중들은 철제울타리를 뚫아 그 끝으로 경찰들을 찔렀다. 우리 민중을 희롱해선 안 된다. 우리의 '서민'은 런던 전체를 부술 수 있다." 아마 부술 수 있었을 것이다. 1886 년 정부는

우에 그 결과는 다시 가장 험오스런 농노제가 될 것임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민중속에 있는 사람은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사실들을 통해 판단합니다. 때문에 그는 책에서 떠들어 대고 있는 국가는 과거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선발된 무수히 많은 관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노동자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동료들이 한번 우두머리가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현재의 악이 다른 악으로 대체되지 않고,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사회체제를 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집산주의가 결코 민중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민중대중은 공산주의로, 40 년대의 교회와 자코뱅적 색채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공산주의로, 즉 자유롭고 아나키즘적인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5 년간 유럽 사회주의 운동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현대 사회주의는 자유로운 공산주의로 즉각 진일보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중들 생각속의 모호함 때문에 사회주의 선전의 지속적인 성공은 저지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보장이 사회주의 혁명의 제 1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회주의자는 우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보장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완전히 국가 밖에서, 국가의 개입 없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축적된 모든 부를 사회가 장악하면, 생산분야에서 하루 4-5 시간 노동한다는 조건 아래 모든 구성원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이라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먹는 빵, 사는 집과 배우는 책 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생산분야에서든 각각자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능숙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생산수단의 단순화를 고려하지 않고 도 사회는 이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회사가 얼마나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얼마나 적은 양의 노동이 개인에게 요구되는지, 그런 회사는 얼마나 거창한 일들을 지금 언급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지를 상상하느라, 지금이 순간 엄청나게 많은 힘이 낭비되고 있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유감스럽지만, 형이상학적 정치경제학은 모든 본질을 구성하는 문제, 즉 **노동력의 경제학**²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² 자본주의적 이든 사회주의적 이든 정치경제학은 지난 세기 말 신학이 있던 바로 그런 상태에, 즉 여전히 순수한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칙들을 혹은 양적인 법칙들을 양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양적인 관계들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학의영역에는정치경제의 과학을위한자리도있습니다. 그것을연구하기시작하면그과학은현재의과학과는전혀다른것이될것입니다. 그것은사회생리학의자리를차지할것입니다. 식물생리학은, 식물이최소의에너지를소비하여개체와종의보존이란최대의효과를얻기위하여어떤장치를사용하는가를연구합니다. 사회생리학은사회를위해같은것을행합니다. 즉이장치들을연구하고, 그결과들을비교하여개체와종의최상의생존을위하여어떤장치가에너지를무분별하게낭비하는가를말해줍니다. 경제적이지만유익한장치도있습니다. 모든자연법칙의조건성에대해고찰하지않고, 사회발전에대한 3 부작을집필하고법칙을찾는것은, 지질학과생리학이아직과학이아니었던시절에했던것과같은것을하는것입니다. 그것은필요하다고할수있지만, 정치경제의과학은여전히존재하지않습니다.

현대의발전된기술조건아래공산주의사회가부유하게될가능성은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 개인이국가의통제에완전히종속되지않고그와유사한사회가존재할수있는가, 그리고물질적행복을위해유럽사회가금세기동안많은희생을대가로성취한독립의자유를희생시킬수있는가와같은질문에만의문을제기할뿐입니다.

그러나사회주의자들중어떤분파는자유를국가의제단앞에희생제물로바치지않고는그런결과를성취할수없다고주장합니다. 그러나반대로다른분파는 - 우리도이분파에속해있습니다. - 공산주의를성취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국가의폐지, 개인의완전한자유성취, 자발적협약, 완전히자유로운조합과조합연방결성의방법을통해우리사회의유산을함께지배하며모든부를함께생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 5 층에서떨어지는돌이 1 층에서떨어지는돌보다더빠르다는것을보고, ‘돌이 지나온공간은그것이떨어진시간에비례한다.’고말하면서도, 자신의주장을숫자로검증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물리학자가있다. 우리는그런물리학자에대해무슨말을할것인가? 그런데교환가치의문제에대하여사람들은우리에게, 교환가치는필요한노동의양에의해측정된다고 (즉, 교환가치는노동에비례한다는것이다.) 말하면서도, 이런주장을위해, 두양사이에직접적인비례관계가성립하며 (‘한쪽의기능이다른쪽의기능과직접연결되어있다’고수학자들이말하는것처럼), 그러한관계가실제로존재한다는것을의무적으로증명해야한다는것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도하지않는다. ‘아프리카에서다이아몬드를많이채굴한 이후, 다이아몬드의가치가줄어들지않았던말인가?’라고언급하고, 경제학자는이어실론언급으로만족한다. 각각의자연법칙은조건적형식속에표현된다. 즉‘하나가존재한다면다른것도발생할것이다.’라는것에대해서마치들어보지도않은것처럼, 그는‘가치의기준은곧노동이다.’라고말한다. 하지만사실은그것이존재한다면, 그것이존재하는조건도존재한다. 그리고모든관심은이조건들을연구하는것에있다. 즉이조건들이언제나존재하는가아니면가끔존재하는가라는질문이다. 물론나는우리동시대의연구가들에대해서말하고있다. 가치의노동이론과관련해서, 창시자인아담스미스도그런종류의주장에대해약간잘못이었다. 모든물체는서로끌어당긴다는주장에서뉴턴이그런것처럼.

스코틀랜드야드⁷, 거리의여인들의도움을받는파리비밀경찰그리고러시아의제 3 부⁸의모습을그러보십시오. 재판소의속을들여다보십시오. 장엄한돌벽뒤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보십시오. 여러분은깊은혐오감을느낄것입니다. 감옥은인간의모든자유의지와개성의힘을말살하고, 지구상의어떤곳보다더많은악덕을벽속에가두고있습니다. 그런감옥이늘범죄의최고학부역할을하지않는단말입니까? 그리고법정은가장추악한잔인함을가르치는학교가아니람말입니까?

우리가국가와모든국가조직의폐지를요구할때, 현실에존재하는것보다더훌륭한사람들로이루어진사회를꿈꾸고있다고사람들은우리를반박할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전혀당치도않습니다! 우리는이추악한국가가관들이사람들을지금보다더나쁘게만들지않는다는그한가지만을요구합니다.

독일의저명한법률가인예링 (R. von Jhering) 은자신의학문연구를저서로정리해야겠다는생각을하였습니다. 그는저서에서사회생활을유지시키는수단들을규명하려고하였습니다. 이책의제목은 『법의목적 (Der Zweck im Recht)』 이고, 합당한명성을누리고있습니다.

그는연구계획을세우고풍부한지식을동원하여본질적인두가지강제수단을연구하였습니다. 그것은임금과법에명시된강제의형식들입니다. 마지막에그는두장을첨가하였습니다. 법률가에게는당연한것이였겠지만, 특별한의미를부여하지않았던두가지비강제적수단에대해환기시키기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의무감과동정심입니다.

왜그랬을까요? 그는강제수단들에대해연구하는동안그것으로사회체제를유지하는것이전적으로불충분하며, 불가능하다는확신을갖게되었습니다. 그는강제수단들에대한연구에책한권을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결과를볼때그것의중요성은매우약화되고말았습니다.

마지막두장을앞두고사회생활의비강제적수단에대한고찰에착수하였을때, 그는이수단들이매우크고압도적인중요성을갖고있음을알게되었습니다. 첫번째것보다더두꺼운두번째책을 - 이두수단, 즉자발적자제自制와상호부조에대해 - 써야했습니다. 그러나그는연구대상의미미한부분만을탐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사회활동의실현을위한자유로운협약의문제를약간다른후에, 그는개인적동정심에서유래한것에대해서만언급했기때문입니다.

여러분이학교에서배운공식만을되풀이하는대신, 이문제에대해조금이라도진지하게생각한다면, 예링이경험한것을여러분각자가경험할수있을것입니다. 여러분스스로이문제에대해진지하게고민하여보시기

⁷ 역주 - Scotland Yard. 영국런던경찰국의별칭.

⁸ 역주 - 정치적인사안과관련된수사, 검열등을주로다루는황제직속의비밀경찰로 1826 년만들어졌다.

서복잡한것으로나아가는, 이에상응하게다양하고, 개별적지방조직의 요구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하는상호간의협약에근거한조직을창조하려노력하지않을까요? 성취한부를사용하며살고, 삶에필요한모든것을 생산하는가능성을스스로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말입니다. 다르게말하면, 사회변혁을완성하기위해현대국가조직을파괴할까요, 아니면새로운형태의국가를즉, 오래된민중탄압무기를다시만들까요? 혹은국가없 이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을까요?

민중은한세기를지배한열망을따를까요? 반대로그열망을거슬러, 자신을파괴하는권력을만들기위해노력할까요?

푸리에가미심찍은투로‘문화화된인간’이라일컫는문화적인간은사회에서재판관, 헌병, 교도관등이언젠가는없어질수도있다는생각에떨고있습니다.

학자들은다른사람들이과거에쓴책의내용을아주잘알지만, 민중과 그들의일상생활에대해서는거의모릅니다. 그런데자신들이쓴책에서말하는것처럼, 이런학자들이정말우리에게필요할까요?

우리는경찰이우글거리는파리의거리뿐만아니라, 보행인을자주만나기힘든시골길에서도안전하게거닐수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는어떤것을선택해야할까요? 경찰일까요아니면통행인을살해하거나강탈하려는사람이없는상태일까요? 물론나는많지않은백만장자들에대해말하는것이아닙니다. 나는힘들게번몇푼이든돈지갑이아니라, 자신의목숨을걱정하는보통시민을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의두려움은근거가있는것일까요?

최근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 살인마잭 (Jack the Ripper) 은런던에서문자그대로경찰들가운데가장부지런하다는즉, 런던경찰의코앞에서만행을저질렀고, 화이트채플 (Whitechapel) 의시민들이추적하기 시작했을때야비로소만행을중단했습니다.

다른시민들과우리의일상적관계는어떻습니까? 재판관, 형무소그리고헌병들이반사회적인행위를실제로예방할수있다고생각하시나요? 재판관은법률적광기에사로잡혀있고그결과언제나잔혹하다는것을여러분은모르시나요? 밀고자, 스파이, 교도관, 사형집행인, 경찰같은사람들이없으면재판관은어떻게살까요? 그리고이런온갖의심스런인물들이재판소주변에자리를잡고서실제로그들하나하나가, 사회에만연된부패의온상이되고있다는것을여러분은모르시나요? 이재판소생활을좀보시기바랍니다. 재판보고서를읽어보십시오. 광고를훑어보기바랍니다. 경험많은형사의도움으로남편과부인들의행동을저렴한비용으로몰래조사해주겠다는사설흥신소광고가신문에가득합니다. 단편적으로나마

이질문은가장중요한현안이되고있습니다. 모든노력이허사로돌아가는것을원하지않는다면, 사회주의는이질문에대해즉각답해야할것입니다.

우리는사회주의를예의주시할것입니다. 이것은사회주의가자초한것입니다.

토지와자본에대한사적소유의폐지가역사적으로필연적이라는것을 처음듣거나생각했을때, 얼마나많은편견이자신속에있었는가를모든사회주의자들은쉽게회상할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모든법, 행정시스템, 연맹관계를포함해국가의폐지는역사적으로필연적입니다. 또한자본주의의폐지는국가의폐지없이불가능하다는견해를처음접하는사람들도오늘날같은경험을합니다.

이러한생각은교회와국가가자신들의이익을위해주관하는교육이우리안에주입한모든개념과대립하고있습니다. 이것은논쟁의여지가없습니다.

우리는권력의필요성에대해많이배우고있었습니다. 우리는매우겉에질려, 기독교적인관점에서자기자신을, 역사적인관점에서‘비이성적인군중’을더욱두려워합니다. 우리는반란, 무질서, ‘혼돈’, ‘아나키’의위협에대해많은것을들었습니다. 그결과무권력無勸力의이념은처음부터우리를놀라게합니다.

그러나그렇다는이유로무권력의이념이덜정의로운것이라할수있을까요? 자유를위해우리는이미주인, 소유권, 종교와관련된편견들을버렸는데, 우리가국가란편견앞에서멈춰야할까요?

국가의비판에많은시간을할애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이미여러번했습니다. 마찬가지로국가의역사적역할도고찰하지않고, 나의다른논문인「국가 - 역사에서국가의역할」을인용하도록하겠습니다. 몇가지공통적인사항만을언급하겠습니다.

무엇보다인간사회는지구에인류가나타난처음부터존재하였다는것입니다. 이에반하여국가는우리유럽사회에서가장최근에만들어진사회생활의형식일뿐입니다. 인간은최초의국가가수립되지전수천년동아미존재하고있었습니다. 그리스와로마는마케도니아왕국과로마제국이나타나기수세기전에이미번성하였고, 사실우리현대유럽인에게국가는16세기이후에야나타난현상입니다. 바로그당시에자유공동체의파괴가완료되었고, 군대권력과사법권력, 토지소유자와자본주의자사이의상호보험사회가창조되었습니다. 이사회를국가라고부르게되었던것입니다.

자유로운조합과조직들, 모든단계에서자유로운독립적집단들의연합은도시와농촌의독립성을대표하였고, 지금국가가장악하고있는의무

를수행하였습니다. 16 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때까지 우세하던 독립성의 표상은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농민운동, 후스파운동, 재세레파운동³ 그리고 자유도시들을 정복한 이후에, 교회와 태동하던 왕권사이의 동맹은 비로소 연방적 자유조직들에 중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9 세기 이후 15 세기까지 존속하였고, 전혀 새롭고 강력한 문명을 창조했던 중세 자유도시의 탁월한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티에리(J. Thierry)와 시스몽디(J. Sismondi)가 이 문명의 성격을 잘 포착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대의 역사가들은 이들의 저서를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귀족, 성직자, 상인, 재판관, 군인 그리고 왕사이의 협약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강화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 존재했던 모든 길드, 수공업자 조합, 장인 조합, 도제 조합, 형제단, 이웃 공동체 등 자유 조합들은 도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황제들이,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의 차르가 공동체에 속한 토지를 약탈하였습니다. 길드가 소유했던 부는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자유로운 협약은 무조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지배를 확고히 하고, 다음에는 서로의 관계를 모두 상실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교회와 국가는 어떤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개인 살해 혹은 집단 살육, 거열형車裂刑⁴, 교수형, 참수와 화형, 고문, 모든 도시민의 강제 추방 등 모든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살해당한 수많은 농민들, 라인과 스위스에서 살해당한 많은 사람들, 노브고로드에서 자행된 이반노제의 만행을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 20 년전부터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는 투쟁과 혁명의 방법을 통해 자유 조합과 중세의 수공업자, 농민, 심지어 농노들까지도 향유하였던 가능한 모든 연합에 대한 권리의 부스러기들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⁵

우리들은 이 권리들을 다시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현대의 문명국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책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열망은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천 개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조합과 단체를 만들려는 열망입니다.

³ 역주 - 재세레파 혹은 재침레파 (Anabaptist) 라고 한다. 재세레파는 16 세기 종교개혁 당시 급진적인 개혁을 따른 개신교 종파를 가리킨다. 이들은 유아세례뿐만 아니라 마가톨릭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⁴ 역주 - 사형수의 사지와 척추를 철봉으로 부러뜨린 다음, 두 다리와 머리가 달도록 바퀴에 묶은 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놔두는 중세의 형벌.

⁵ 독자들은 이 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국가 - 역사에서 국가의 역할」이란 논문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저서 『상호부조론』의 3 장 「야만인의 시대」와 4 장 「중세의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

전 유럽은 연구, 산업 훈련, 상업, 과학, 예술, 문학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오락과 진지한 노동, 즐거움과 자기 희생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등,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하고 사유하는 존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위한 자발적인 조합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정치, 경제, 예술, 학문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단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빨리 사라지지만, 일부는 이미 10 년을 살아남은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집단, 서클, 동아리 혹은 분야는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서로 결합함으로써, 종횡으로 교차하는 그물로 문명화된 모든 인간을 감싸 안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단체는 이미 수만 개에 이르며, 수백만 의사람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 중 일부가, 그것도 일부만이 교회와 국가로부터 독립한 것은 50 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 단체들은 전에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되던 것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활동으로 국가의 단일하고 관료적인 권력 활동을 대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는 절도 보험사,⁶ 수해 보험사, 국가 방위 자원 단체, 해변 수호를 위한 단체 등 끝없이 많은 단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이 모든 단체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그것을 권력 강화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때로 국가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적십자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체들의 제 1 목적은 국가 없이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단체들이 교육과 훈련의 영역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국가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거짓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단체들은 이미 이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난 3 세기 동안 탈취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상관없이 그리고 국가에 대항하여 많은 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조합들이 조금씩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지만 국가의 힘에 굴복하여 발전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면 우리는 여기에 강력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새로운 힘이 관통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오년, 십년, 이십년 후가 되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쫓겨나는 노동자가 성공적으로 지주, 은행가, 성직자, 재판관, 군인 사이의 소위 상호 보험 관계를 분쇄한다면, 민중이 몇 개월 동안 스스로 문명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창조하고 법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부를 장악한다면, 노동자가 약탈적인 국가의 부활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반대로, 단순한 것에

⁶ 1 년에 몇 루블의 보험료로 여러분은 1,000 루블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도난당한 것이 무엇이든 지, 보험에서는 아무 말 없이 도난 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여러분에게 지불한다. “물론 도둑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시겠지요?” 우리가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절대 아니죠.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